

광주형 AI반도체, 'CES 2025' 서 최초 공개 '주목'

市·에이퓨처, 시제품 데모 행사 전기차충전소 화재감지 예측 시연 고도화·상용화면 국산 대표사례로 강 시장 "클러스터 모델 성공 전략"

인공지능(AI) 대표도시광주에서 생산할 '광주형 AI반도체'가 세계 최대 전자·정보통신(IT)기술전시회 'CES 2025'에서 최초 공개됐다.

광주시와 (주)에이퓨처는 9일 오전 7시(현지시간 8일 오후 2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5' 에이퓨처 전시부스에서 광주형 AI반도체 'AiM-GJ-1(에이-지제이-원)' 시제품 데모 행사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했다. 데모 행사란 특정 제품이나 기술의 기능을 시범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에서 강기정 시장과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 오상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 이근신 엔에이치네트웍스 대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관계자 등이 온라인 화상으로 참여했다. CES 현지에서는 김창수 에이퓨처 대표, 말리모터 미국 신티안트사 부사장, 이경주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공개된 광주형 AI반도체 'AiM-GJ-1



강기정 광주시장이 9일 오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2025 참가 중인 (주)에이퓨처 전시부스에서 열린 '광주형 AI반도체(AiM-GJ-1) 데모행사'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에이-지제이-원)'은 지역기업의 요구를 반영하고 광주시가 추진하는 AI실증 사업에 적합하게 설계된 AI반도체 시제품이다. 광주시와 에이퓨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지원기관, 반도체 수요기업 등이 협력해 개발 중이다.

데모 행사에서는 반도체 설계(팹리스) 기업인 에이퓨처가 수요기업인 엔에이치네트웍스의 요구를 반영해 제작한 반도체를 활용한 '전기차충전소 화재감지 예측 서비스'를 선보였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에 '광주형 AI반도체' 시제품을

적용, 실시간으로 CCTV를 통해 전기차 충전기의 온도를 감지하고 60도 이상이 되면 관리기관에 알람을 작동시키는 AI 기술이다.

광주시는 엔에이치네트웍스와 실증 협력을 시작으로 지역기업 5곳과 '광주형 AI반도체'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수소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AI 고장진단 예측, 비대면 양돈축사관리 서비스, 생체신호분석 반력동물케어 솔루션 서비스 등에 '광주형 AI반도체' 실증이 이뤄지게 된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에이

퓨처, 지역 수요기업 5개사와 상호 보유 기술 및 제품 소개, 광주형 AI반도체 개발 및 적용 방안 등을 협의했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해 10월 반도체 팹리스(설계)기업인 (주)에이퓨처를 유치하고, 지역전략산업과 융합한 '광주형 AI반도체' 개발에 나섰다.

AI반도체는 AI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대규모 연산을 초고속·저전력으로 실행하는 지능형 비메모리 반도체를 말한다. 현재 국내 AI반도체 시장은 그래픽처리장치(GPU) 회사인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지만, 높은 비용과 제한된 공급 문제 등으로 국산 AI반도체 개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에이퓨처는 오는 2026년 9월 'AiM-GJ-1(에이-지제이-원)' 본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KT(케이티)와 전국 30곳에서 실증을 진행 중인 에이퓨처와 광주시 지역기업의 맞춤형 AI반도체 제품 개발과 실증을 통해 '광주형 AI반도체'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김창수 에이퓨처 대표는 "그동안 많은 AI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GPU에 의존해 왔다"며 "하지만 광주형 AI반도체가 상용화되면 국산 AI반도체로 전환함으로써 지역기업의 AI제품과 서비스를 고부가가치화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광주형 AI반도체' 시제품은 CES 현장에서 AI 기업, 학교, 미디어 등의 관심을 끌었다.

광주시는 광주형 AI반도체가 지역 전략산업과 융합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동차, 가전, 헬스케어 등 지역 주력산업에 광주형 AI반도체를 적용한 AI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성공한다면, 국산 AI반도체의 대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는 연계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적용 온디바이스 AI스케일업 밸리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오는 2027년 12월까지 4년 간 총사업비 156억 원을 투입,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보유한 AI반도체 관련 기술을 지역기업에 이전하고 시제품 제작과 상용화 지원 등 기술 사업화를 지원한다.

강 시장은 "CES를 통해 광주형 AI반도체를 세계시장에 첫선을 보인 뜻깊은 날이다. 광주형 AI반도체는 기업 유치는 물론 기술개발, 실증, 상용화까지 선순환 구조를 성공시킨 첫 사례가 될 것이다"며 "기업·기관의 역량을 총결집해 지역산업의 그릇을 키우고 경제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반드시 '광주형 AI반도체 클러스터 모델'을 성공시키겠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전남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누리집 개통

신속·정확한 대회·관광 정보 제공

전남도는 오는 4월 전남에서 열리는 전국 생활체육 동호인의 최대 종합대회인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공식 누리집을 개통했다고 9일 밝혔다.

공식 누리집은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http://jeonnamsports.or.kr>)'으로 운영되고,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전국생활체육대축전'으로 검색하면 손쉽게 빠르게 접속할 수 있다.

누리집은 대회 소개와 경기 정보 등을 한눈에 보도록 구성됐다.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환경에서 최적화된 화면 구성이 보이도록 구동되고, 이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구축됐다.

경기장 안내는 누리집에서 해당 경기장

을 검색한 후 지도에 표시된 경기장 바로 가기를 선택하면 카카오톡으로 연동돼 길 안내가 시작되는 등 별도로 경기장 검색이 필요 없도록 이용자 편리성을 강화했다.

또한 경기 정보와 경기 기록은 대한체육회와 연결돼 실시간으로 생생한 경기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대회 기간 전남을 방문하는 선수단과 관광객이 전남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지역별로 쉽게 찾아보도록 22개 시군별 주요 관광지 및 맛집, 교통, 숙박 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이며, 각 시군 주요 관광정보를 지속해서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4월 24일부터 4일간 주 개최지인 목포를 중심으로 19개 시군 58개 경기장에서 종목이 분산 개최된다.

오지현 기자



광주 서구 천원국시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등이 9일 농성 1동 골든힐스타워 111호에 '천원국시 8호점'을 개소한 후 국수를 시식하고 있다. 천원국시 8호점은 '다(多)가치 서로돌봄마을'을 콘셉트로 운영되며 취약 계층을 위한 착한 가격의 식사를 제공한다. 60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7세 미만 아동, 그리고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1000원, 일반 주민은 3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매장은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되며 하루 100그릇 한정으로 제공된다.

김양배 기자

전남도, 올해 저수지 준설 39개소 '전국 최다'

10만㎡ 9개 저수지 신설 효과 가뭄홍수 대응능력 강화 기대

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2025년 저수지 준설사업에 전국 최다인 39개소가 선정돼 총 160억 원의 국비를 확보, 2년 연속 최다 선정 쾌거를 이뤘다고 9일 밝혔다.

선정된 저수지는 우기 전 준설이 가능하고 퇴적 비율이 높으면서 수해 면적이 넓은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다. 지역별로 영광 8개소, 구례 7개소, 해남 6개소, 나주 5개소, 장성 3개소, 순천, 고흥, 진도 각 2개소, 곡성, 보성, 화순, 함평 각 1개소다.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지사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저수지 준설사업은 퇴적으로 저수용량

이 부족한 저수지의 저수용량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선정된 39개소의 저수지 준설이 마무리되면 총 90만㎡의 저수용량이 확대돼 10만㎡의 저수지 9개를 신설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퇴적토 제거로 저수지의 물그릇을 키워 안정적 영농 급수,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예방과 함께 저수지 하부 부유물 제거를 통한 수질개선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미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영농기 이전에 최대한 마무리해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도 예방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신규 지구 발굴 및 사업 추진을 통해 안정적 수자원 확보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광주시, '안정·효율' 도시정비사업 표준정관 고시

국토부 정관에 지역 여건 반영 부산·서울 이어 특광역시 세번째

광주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시 도시정비사업 표준정관(안)'을 마련, 9일 고시했다.

도시정비사업 정관 고시는 특·광역시 중 부산시(2020년), 서울시(2024년)에 이어 세 번째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의 표준정관이 있었으나 법령 개정사항 등이 반영되지 않아

조합에서 실무상 시행착오를 겪는 등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광주시 도시정비사업 표준정관'을 만들게 됐다.

광주시는 국토교통부의 표준정관을 바탕으로 지역 여건을 반영해 수정·보완한 뒤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등 전문가 검토와 자문을 거쳐 표준정관을 마련했다.

'광주시 도시정비사업 표준정관'은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나뉘어 있으며 △조합원의 자격·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시공사·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총회·대의원회 등 의결사항·

방법·운영에 관한 사항 △회계 및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있다.

광주시 도시정비사업 표준정관은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과 광주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https://hreas.gwangju.go.kr/>) 정보마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준영 도시공간국장은 "광주시 표준정관은 정비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관련 법령과 기준에 맞춰 도시정비사업을 안정적·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